탈모예방제, 천연소재 연구 "활발"

천연물 함유제품 특허 102건 출원 … 숯·황토를 비롯한 생약제 적용

스트레스로 인한 탈모증상이 노인이나 남성에서 여성 및 청소년에게까지 확산됨에 따라 천연물을 소재로 한 탈모예방 모발제의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탈모예방 모발제 관련 특허는 총 199건이며 이 가운데 식물이나 과일성분의 천연물을 함유한 탈모예방 모발제 관련 특허는 전체의 51.2%에 해당하는 102건이 출원된 것으로 집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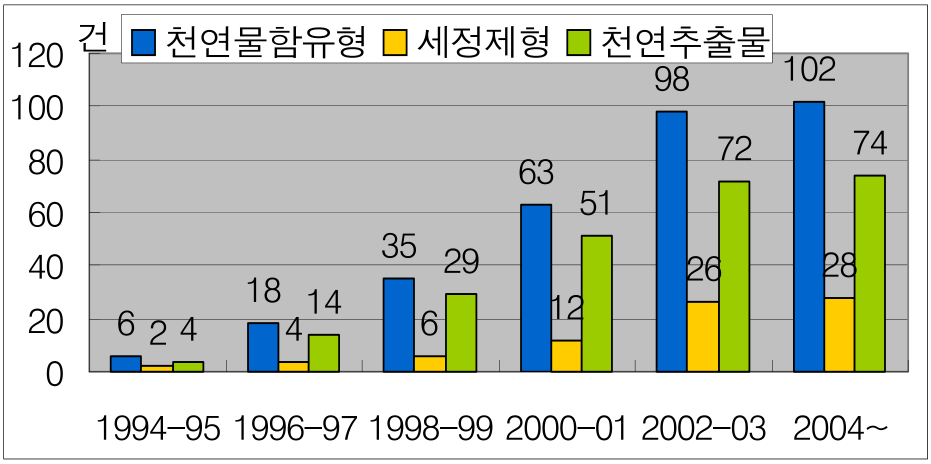
전체 탈모예방 모발제의 특허출원은 1994-95년 12건에서 2002-03년 55건으로 4배 이상 증가했으며, 천연물 함유 탈모예방 모발제는 1994년-95년 6건에서 2002-03년 35건으로 약 6배 성장했다.

천연물을 소재로 한 탈모예방 모발제는 기존의 계면활성제 등의 화학성분보다 상대적으로 인체에 대한 부작용이 적고 두피 보호작용이 뛰어나기 때문에 관련 제품의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천연물 함유 탈모예방 모발제 102건 중 매일 사용이 가능한 샴푸, 비누 등 세정제형의 출원이 28건이었으며, 추출 또는 단순조성물인 피부외용제는 74건이 출원됐다.

탈모예방 모발제에 사용되는 천연재료로는 인삼, 상백(뽕나무), 검은콩, 검은깨, 오가피, 구기자 등에서 최근에는 숯, 황토 등을 이용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으며, 대중의 자연지향적인 생활방식에 부응해 향후 천연 생약제를 함유한 제품 개발이 활발히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천연물 함유 탈모예방 모발제 특허출원 동향



한편, 국내 탈모인구는 350만명 정도로 추산되며 최근에는 여성에서도 급증해 40대 이상 여성의 20-30%가 탈모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내 탈모방지 및 발모제 관련 시장규모도 2002년 2000억원 수준에서 2004년 약 4000억원으로 2배 가량 증가했으며 탈모인구의 저연령화에 따라 증가세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주인경 기자>

<화학저널 2004/08/10>

Copyright ⓒ 2003 by CMRI 화학경제연구원